

## Fintech, 금융이 바뀐다

2019.1.16(수), 서울창업허브

※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다를 수 있습니다.

여러분 반갑습니다.

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신다고 해서

저도 평소와 다르게 입어봤습니다. 좀 어색하죠?

저도 제가 “**낯설지만**”

조금만 지나면 저도 여러분도 익숙해질테니

잠시 인내심을 발휘해보십시오.

## 변화의 시대

낮선 것이  
**New normal** 새로운 기준  
이 되는 시대

21세기 유일한 상수는  
**Change** 변화 이다

유발 하라리(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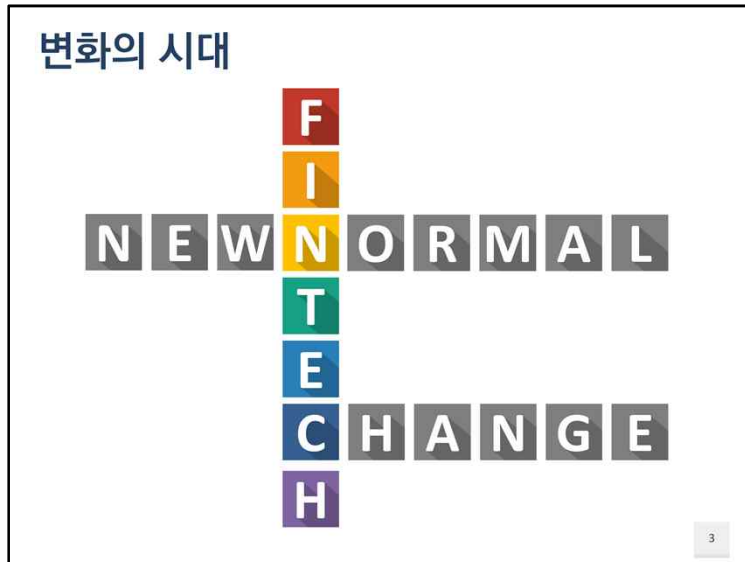
2

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 
바로 이 “**낮선 것**” 이 **새 기준**(New Normal)이 되는 시대입니다.

10년 전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.  
10년 후 우리의 모습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

누군가는 21세기의 유일한 상수는  
“**변화**” 뿐이라고 했습니다.

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 
우리 미래는 분명  
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는 것 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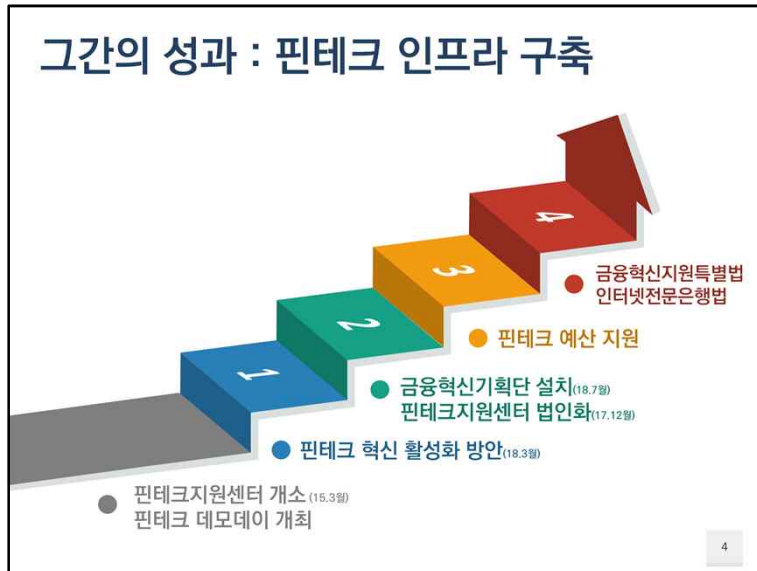


그 변화의 중심에 핀테크가 있고  
바로 여러분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.

“Fintech, 금융이 바뀐다”

핀테크가 등장한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 
이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.

저희 세대는 하지 못한  
**과감한 도전**을 하고 있는  
여러분이 정말 **자랑스럽고 든든**합니다.



정부도 우리경제 신성장동력인 핀테크를  
다각도로 지원해왔습니다.

특히 지난해에는 **핀테크 인프라 구축**에  
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.

핀테크 전담 **조직**도 갖추었고  
최초로 핀테크 지원 **예산**도 마련했습니다.

**금융혁신지원특별법**과 **인터넷전문은행법** 제정으로  
제도적 기반도 갖추어졌습니다.

## 2019년 핀테크 정책 기본방향



→ 핀테크가 대한민국의 **혁신성장** 견인

5

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<골든 타임>이 될 겁니다.  
그간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.

지금까지 마련된 인프라를 토대로  
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 
“집중 지원” 하겠습니다.

또 금융권 전반,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 
핀테크 혁신이 “확산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올해 금융위원회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서  
핀테크 혁신의 “집중지원” 과 “확산” 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.

핀테크로 **대한민국의 혁신성장**을 힘차게 견인하겠습니다.



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생태계의  
**선순환 구조**를 만들어야 합니다.

우선 핀테크 생태계에  
충분한 **자본**과 우수한 **인력**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.

또 지속적인 **규제 환경** 개선과 수요창출을 통해  
**영토**를 넓혀 가겠습니다.

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 
**유니콘 기업**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

올해 **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**이 시행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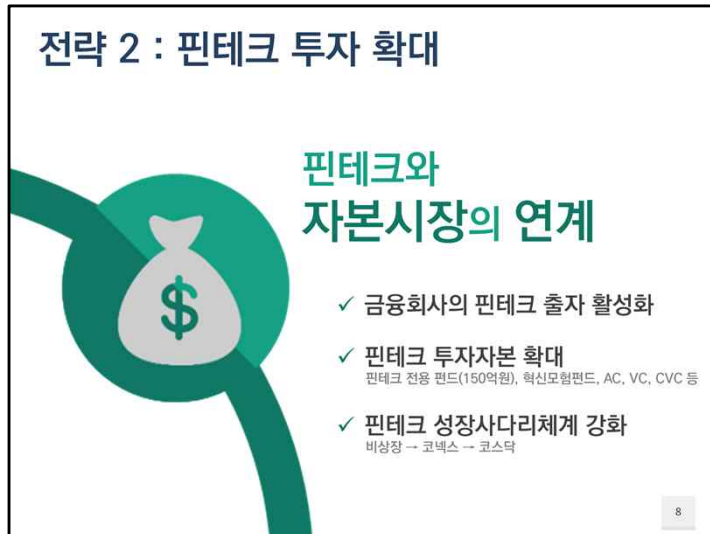
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 
모래놀이터에서 맘껏 뛰놀 수 있습니다.  
여러분의 과감한 시도를 기다리겠습니다.

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벌써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.  
법 시행은 4월부터지만 **1월말부터 사전 신청**을 받아서  
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혁신금융서비스를 실험하는 각 회사에  
저희 금융위원회 사무관 한 명씩 **혁신전담매니저**로 지정해드리겠습니다.

100여개 핀테크 기업에는 혁신 테스트에 필요한  
**40억원의 예산을 직접 지원**하겠습니다.

혁신금융서비스 지정부터 시장안착까지 전 과정을  
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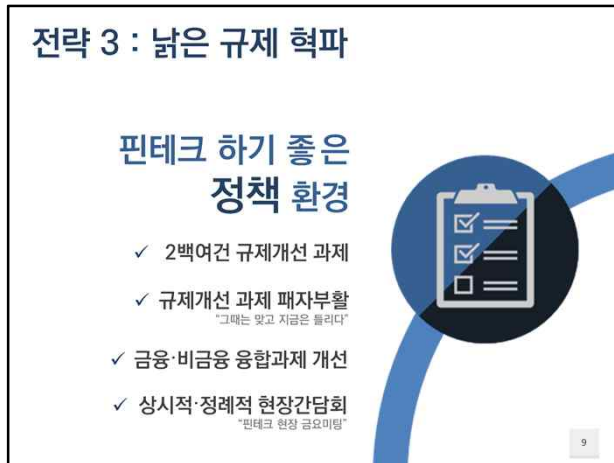
올해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 
**핀테크 투자 확대**입니다.

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**출자 제약을 해소**하고,  
**성장단계에 맞춰서 자본시장과 연계**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핀테크 전용펀드, 혁신모험펀드, 금융권 혁신투자 펀드 등  
 대형 투자자본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 
 여러분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 
 물길을 만들고 넓혀 나가겠습니다.

오늘 투자회사도 많이 오셨죠?  
 오늘 행사에 앞서서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간  
**만남의 시간**을 마련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.  
 성공률 높은 **중매쟁이**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.





시대에 맞지 않는 **넓은 규제**들은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.

지난해 구성한 핀테크 규제개혁 T/F는

**약 2백여건의 규제개선 과제**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과거에 안된다고 했던 것들,

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규제들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.

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1분기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

**답은 분명 현장에** 있을 겁니다.

여러분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

국장, 과장, 사무관이 매주 현장을 찾을 겁니다.

매주 금요일에는 **“핀테크 현장 금요미팅”**을 열 겁니다.

**여러분들의 수첩에 적힌 고민**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.

그 고민을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

**전략 4 : 핀테크 맞춤형 인력·공간**

**핀테크 맞춤형  
인력 · 공간 확충**

- ✓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  
신기술 융합 전문인력
- ✓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
- ✓ 핀테크 창업청년 공간제공  
핀테크지원센터, 디캠프, 마포혁신센터



10

산업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**“사람”**입니다.

핀테크는 **일자리 구조**도 크게 바꿀 것입니다.

단순 업무는 사라지고

빅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, 클라우드, 블록체인 등

**신기술과의 융합역량**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.

현장의 인재수요에 맞는

전문인력이 맞춤형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

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것입니다.

여러분의 큰 꿈에 맞도록

**“공간”**도 넓혀 나가겠습니다.

**핀테크지원센터, D-Camp,**

그리고 내년에 완공예정인 **마포 청년혁신센터**가

여러분의 놀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

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**경계**가 계속 넓어져야 합니다.

개방과 경쟁을 통한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,  
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, P2P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 
**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**을 돕겠습니다.

특히,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 
**인허가 단위**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.

오는 5월에는 대규모 **글로벌 핀테크 박람회**를 개최해서  
해외 금융당국, 투자자들에게 우리 핀테크 산업을 알리고  
많은 국민이 핀테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.

기존 금융회사들처럼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.  
여러분은 반드시 **국경 없는 글로벌 모델**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



다음 스텝(Next step)은 **기존 금융권**입니다.

그간 금융회사들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

다소 **방어적**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.

얼마전까지만해도 금융회사는 핀테크의 확산을  
**위협으로 인식**하기도 했습니다.

연못이 두려워 익숙한 웅덩이에 남아있는 개구리는

그 작은 웅덩이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

더 큰 세상을 평생 알지 못할 것입니다.

금융회사들이 현재에 안주하며 **자기혁신**에 실패한다면  
이 변화의 시대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.



금융권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.

아니, **변화**를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.

인류 역사상 변화의 흐름을 거부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.

기존 금융질서에 도전해오는 핀테크 기업들을  
끌어안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.

**핀테크** 랩을 통한 지원, **출자 확대** 등을 통해서  
연계성을 더욱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핀테크 등 신사업분야에 대해서는  
금융회사 **임직원의 제재를 면제**하거나 줄이겠습니다.  
이와 함께 핀테크와 관련된 **인허가 절차도**  
**신속**하게 처리하여 적극 돕겠습니다.

핀테크 혁신은 핀테크 기업만의 일은 아닙니다.  
금융회사 스스로 핀테크 기업이 되어  
데이터, 결제 등을 아우르는 **디지털 플랫폼**을 구축해야 합니다.

이를 통해 **디지털 자기혁신**(Digital Transformation)이  
가능해질 것입니다.

온건한 자는 보상을 얻고,  
혁신적인 자는 역사를 **바**꾼다

14

“온건한 자는 보상을 얻지만,  
혁신적인 자는 역사를 바꾼다” 고 했습니다.

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중에 핀테크 혁신의  
새 역사를 쓰실 분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.

과감한 시도로 기존 공식을 파괴하고,  
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헤치고 나아가 주십시오.

여러분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주인공입니다.  
감사합니다.